

구례 지선 후보들, 기후정책 협약

기후위기 대응팀 조직 등 7개항 농민·노동자·시민단체 의견수렴 “공동체 안전 정책 시급히 필요”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구례기후위기 대응팀협의회와 최근 ‘구례군 7대 기후위기 대응 정책’ 협약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협약에 참여한 후보는 정현택 구례군수 후보, 김봉용 전남도의원 후보, 김일순·류재관·이창호 구례의원 후보 등 모두 5명이다.

협약의 관계자는 “구례는 2년 전 수해를 겪은 곳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 공동체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7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구례 기후위기 행동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질의·요구해 온 1, 2차 기후정책 질의서를 바탕으로 농민, 청년농부, 노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정리한 정책안이다.

협약 내용은 ▲시민사회에 ‘구례기후정의시민회의’, 의회에 ‘기후정의특별위원회’, 군에 군수 직속 ‘기후위기대응팀’ 조직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기후위기 생태전환 교육 실시와 2023년 생태전환 교육 예산 최소 1인당 1만 원 확보 ▲생태순환 농업으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우선인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 ▲자원순환 공간 마련 및 인력 배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구례 기후정책 협약식은 구례 오일장 상설무대에서 ‘잘 뵈고 싶다구례 문화제’와 함께 진행됐다. ‘잘 뵈고 싶다구례 문화제’는 풍물패와

함께 오일장에서 경찰서 로터리까지 행진했고, 간문초등학교 환경원정대, 생대 텃밭 교사들, 초등학교 교사, 공정선거 시민 연대 등 각계 시민들이 나와 기후정치와 공정선거 문화를 만들고 발언했다. 이어 좌우당간 풍물패와 이명풍물패의 길놀이, 소소하 밴드의 공연으로 올바른 선거문화를 염원하며 주민들이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다.

구례기후위기단체협의회는 화염사와 섬지아이쿱 생활협동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구례 기후위기 행동 모임 등 구례에서 기후위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결성한 협의체다.

한편 구례군 7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요구하는 ‘주권자 5천인 서명 캠페인’은 계속 진행된다. 온라인 서명 공간(<https://naver.me/5Z0FG3L5>)도 운영하고 있다. /권동현 기자



여수시가 어촌뉴딜300 공모 사업지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현장자문을 진행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 어촌뉴딜 공모 사업지 전문가 현장자문

돌산읍 작금항·금천항 방문

여수시가 최근 2022년 어촌뉴딜300 공모 사업지로 선정된 돌산읍 작금항과 금천항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현장자문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장자문 위원으로는 총괄조정가 3명과 해양수산부 자문위원 3명 등 총 6명이 참여

했다. 전남도와 여수시 담당공무원, 지역주민과 용역사에서도 참석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이 이어졌다.

지난해 수립된 예비계획은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으로 이번 현장자문을 통해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돌입한다.

/여수=곽재영 기자



곡성군 한복 패션쇼가 광주대 안명숙 교수의 지휘 아래 ‘곡성 한복을 입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곡성군 제공

곡성, ‘한복을 입다’ 패션쇼 성료

제12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중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선보이기 위해 섬진강기차 마을에서 개최된 한복 패션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패션쇼는 한복 명장인 광주대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 안명숙 교수의 지휘 아래 ‘곡성 한복을 입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복을 현대화하고 재해석해 전통 한복, 장미 한복, 웨딩 한복이라는 3가지 파트로 나눠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선보인 자리였다. 런웨이에 광주주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 22명이 모델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파트는 조선시대 중기 저고리와 삼국시대 이후의 한복 치마를 응용한 전통 한복 무대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곡성의 심정과 장미공원을 상징화해 꽃과 자수 등을 활용한 장미무늬 한복을 선보였다.

이어진 세 번째 파트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 중 하나인 결혼식을 모티브로 전통 혼

례복을 현대화한 한복 작품을 볼 수 있는 무대였다.

관객들은 특히 세 번째 파트에서 평소보지 못한 적의, 원삼, 구장복, 대수와 면류관 등 격조 높은 웨딩 한복을 마주하며 그 아름다움에 큰 박수를 보냈다. 웨딩 한복은 광주시 총장로 한복의 거리에서 활동하는 한복 전문가들이 제작한 것으로 특별히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위해 협찬했다.

이날 무대는 드론 촬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곡성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곡성=한정길 기자

순천바이오센터, 해조류 활용 발효 배양액 개발 추진

순천시 출연 연구기관인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이하 바이오센터)가 해양수산부 ‘유망기술 Scale-up 사업’에 선정돼 ‘해조류 부산물을 활용한 양액배배 발효 배양액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과제는 폐지 다시마·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활용한 스마트팜 식물재배를 목적으로 미생물 배양액 개발 및 산업화를 목표로 하며, 2년간 4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순천바이오센터는 천연물 소재의 다양한 활용

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남도의 다양한 1차산업 관련 재배 농·어가 및 기업들을 지원해 천연물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순천시 바이오산업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순천대 생물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연구원 등 상호 자원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지역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광양 삼무루지 새싹삼농원,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성공적 농촌 융복합 모델 도약

광양시는 ‘삼무루지 새싹삼농원’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현장실습교육장에 지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장실습교육장은 이론교육장과 실습장을 갖추고 선도농업인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농업·농업대학생, 후발 농업인에게 전수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장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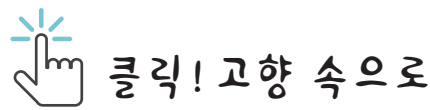
각 품목의 베테랑 농업인들이 현장 교수가 돼 직접 가르쳐주는 맞춤형 멘토 교육이라는 점에

서 교육생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다.

삼무루지 새싹삼농원의 황재익 대표는 400평 규모의 새싹삼 재배 하우스와 가공시설 등의 생산 기반을 마련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새싹삼을 재배해 왔다.

농장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새싹 가공제품 개발·판매와 더불어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3차 산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2016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신지식농업인장에 선정됐으며, 2020년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획득했다.

/권동현 기자



여수 무지개봉사단, 주거환경개선 봉사

여수시 무지개봉사단이 최근 삼일동 작산 양지마을의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지개봉사단원 11명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과 주택 외벽을 페인트로 말끔히 단장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대상 어르신은 “행편이 어려워 보

기 싫어도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음을 표했다.

김성오 봉사단장은 “어르신이 말씀하신 집을 보고 좋아하시는 모습에서 봉사의 보람과 의미를 다시금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보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문패달기 활동

보성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향’이 최근 주말 체험활동으로 장양마을에 문패 달아드리기 활동을 펼쳤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 형태로 손주 이름을 적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멋진 문패를 제작해 32가정에 전달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정성

으로 만들어진 문패는 우리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희망의 메시지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성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의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효를 실천하고 존경심을 배우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성=백종두 기자



광양제철, 놀이문화체험부스 ‘호응’

광양제철소 전래놀이문화 재능봉사단이 최근 중마 마을 축제에 참여해 놀이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 가운데 전래놀이문화 봉사단이 준비한 부스에는 색다른 놀이를 체험해보기 위해 방문한 아이들로 북적였다.

전래놀이문화 봉사단은 계란판 볼

울기, 킵스테킹, 고누놀이 등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놀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며 행복한 하루를 선물했다.

체험부스에서 여러 놀이를 즐긴 아이는 “처음 해보는 놀이라 약간 헛갈리기도 했는데,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동현 기자